

부산 스포츠 이야기



Busan Sports
Council Magazine

47873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로 77
TEL 051. 500. 7900 / FAX 051. 505. 6306

Vol. **26**
2022. 05

영광의 주역

4cm 작은 공에서 크나큰 희망을 찾다
부산광역시탁구협회 부회장
신성란 원로

부산체육인

야구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부산광역시야구소프트볼협회 정신 회장

부산스포츠 히어로

극한의 스피드를 뚫고 뜨겁게 질주하다
사하중학교 자전거부

구·군체육회를 가다

생활체육의 꽃을 피우다
기장군체육회

BSC 뉴스

- 2022 부산광역시 체육지도자
연수회 개최
- 제33회 부산광역시장기
시민게이트볼대회 개최





영광의 주역

4cm 작은 공에서 크나큰 희망을 찾다

- 부산광역시탁구협회 부회장 신성란 원로



부산체육인

야구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 부산광역시야구소프트볼협회 정신 회장



부산스포츠 히어로

극한의 스피드를 뚫고 뜨겁게 질주하다

- 사하중학교 자전거부



구·군체육회를 가다

생활체육의 꽃을 피우다

- 기장군체육회



BSC 뉴스

- 2022 부산광역시 체육지도자 연수회 개최

- 제33회 부산광역시장기 시민게이트볼대회 개최

4cm 작은 공에서 크나큰 희망을 찾다

부산광역시탁구협회 부회장
신성란 원로

“

‘내가 이기고야 만다’라고
다짐한 후 시합을 하면 풀리지가 않아요.
오히려 편안히 내려놓고 ‘즐겁게
하다 가자’라고 생각하니까 성적이
좋아지더라구요.
물론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기 전에 평소에
꾸준히 훈련하는 것은 필수겠죠.

”

신성란 원로는 중학교에 진학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어느 날, 탁구부 추천을 받게 되었으니 탁구와의 인연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그때까지 라켓도 잡아본 적이 없었지만 운동 기본기가 탄탄했기에 금방 탁구를 배워나갔고,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는 스포츠라는 점에 빠지게 되었다.

“중학교 탁구부 선수로 잠시 활동했다가 이후에 전문적으로 훈련하는 운동은 좀 쉬었어요. 하지만 생활체육으로서의 탁구는 꾸준히 이어갔죠. 본격적으로 탁구를 다시 시작하게 된 시기는 30대였어요. 친하게 지냈던 후배가 활동하던 여류 선수 동호회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90년대 후반 전국 대회 단,복식 단체전 수상 모습



2019년 제14회 어르신체육대회 사하구대표 우승

이후 40대 들어 구 대항 단·복식대회에 출전했던 일도 많이 생각한다. 이 당시 우승을 거두고 나서 한 달 정도는 등실등실 구름 위를 걷는 기분이 들 정도로 소중한 결과였다.

“오랜 시간 탁구를 치면서 좋은 사람을 참 많이 만났어요. 나이나 성별에 관계없이 서로 가르쳐주고 배우며 즐길 수 있는 탁구로 만난 선후배들에게는 더 친근감과 끈끈함을 느끼게 되더라구요. 탁구 덕분에 몸이 튼튼해지고 진실한 인연들과 좋은 유대감을 형성하며 마음도 건강해져 감사할 따름입니다.”

신 원로는 탁구가 열심히 공만 치면 되는 스포츠가 아니라 치열한 두뇌 싸움이라고 했다. 시합에서 상대방이 어떤 스타일, 어느 방향으로 공을 칠지 여러 경우의 수를 생각하고, 역으로 상대의 예측을 벗어나도록 공을 치는 계산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그의 주변에 탁구를 치는 시니어들은 치매가 거의 없는데, 이는 탁구가 뇌혈류량을 증가시키기 때문이다.

현재 부산광역시탁구협회의 부회장으로도 활발하게 활동하는 신성란 원로. 협회 차원에서 탁구를 한층 더 성장시킨다는 계획 아래 다양한 탁구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데 힘을 보태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탁구를 즐길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며 환한 미소를 지었다.

야구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부산광역시야구소프트볼협회
정신 회장

“

야구를 하다 보면 사람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야구는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럴 땐 가장 가까워서 키워주시고 그림자처럼
지원해주시는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책임감
있게 훈련받으며 극복해갔으면 좋겠습니다.

”

정 회장은 어린 시절부터 부친을 따라 사회인 야구를 다니며 야구에 관한 흥미와 재능을 발견했다. 중학교 시절부터 야구 선수로 활약하며 야구 명문 경남고와 성균관대에서 야구를 계속했으나, 누적된 부상으로 선수 생활을 더는 할 수 없었다.

누구보다 선수로서의 고충을 잘 아는 정 회장의 야구를 향한 꾸준한 관심은 어느새 야구협회로 향했다. 2017년 구덕 야구 경기장이 없어질 때, 어린 선수들이 대회 경험을 쌓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자 ‘당장이라도 투입되어 일해야 할 것 같다’는 사명감이 생겼다. 제18대 야구협회장을 하셨던 부친이 개최했던 효창수산배 야구대회의 명맥을 이어야겠다고 생각하고 ‘효창수산배





부산광역시야구소프트볼협회 관계자들



효창수산배 리틀야구대회

야구대회'를 부활시켰다. 그의 목표는 오로지 어린 선수들에게 야구하기 안전하고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고 싶다는 데 있었다.

그가 협회장으로서 가고자 하는 방향성은 선수들이 많은 대회에 출전 경험을 쌓아 선수 생활을 오래 하는 것이다. 또한 경기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대한야구협회에 의견을 제시하여 전국대회를 서울뿐 아니라 부산에서도 개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협회의 가장 큰 프로젝트는 경기장 건립이다. 부산에서 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우선 대회를 할 수 있는 경기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우리 선수들이 한 번이라도 더 많은 대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대회를 많이 열어주는 게 제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수들이 많은 대회에 참가하면서 경험을 쌓고 아마추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후 프로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열심히 지원할 생각입니다.”

어릴 적 부친은 자수성가를 하며 힘들었던 때를 기억하고 어려운 이웃을 많이 도왔다. 그 또한 잘난 사람에게 당당히 목소리를 내고, 힘든 사람에게는 도움이 되고 싶다고 한다. 배려와 봉사의 마음으로 따뜻한 리더가 되고 싶은 그의 야구는 현재진행형이다.



극한의 스피드를 뚫고 뜨겁게 질주하다

47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사하중학교 자전거부는 1975년에 창단되어 약 130명의 우수한 자전거 선수를 육성해왔다. 각종 대회에서 높은 성과를 냈으며 특히 코로나19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 열린 제39회 대통령기 전국사이클대회에서 종합 3위라는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

사하중학교 자전거부에는 특별한 점이 있다. 바로 모든 선수가 자발적으로 자전거를 타고 싶어 했다는 것. 부모님을 졸라서 오기도 하고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된 대회 및 훈련 사진을 보고 직접 찾아온 학생도 많다. 통학 시간이 1시간 이상 걸려도 본인의 의지로 시작하여 다니기에 출발점부터 마음 자세가 다르다. 선수들은 항상 자전거를 생각할 만큼 열정이 크다. 본인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끼면 스스로 훈련을 더 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다

사하중학교 자전거부는 선수들이 골고루 성과를 내어 현재까지 100%의 진학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학교에서는 멘탈 트레이닝 실시, 학생 선수 보호자와의 만남 등을 통해 선수들의 미래를 든든히 지원해주고 있다. 자전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한 선수들. 무한한 질주를 향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그들의 찬란한 미래가 기대된다.



생활체육의 꽃을 피우다

기장군체육회는 군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활력소를 만들기 위해 1996년 기장군생활체육회로 발족했다. 이후 생활체육회로 활동해오다 2017년 통합 기장군체육회가 발족, 전국 최초로 민선 회장이 취임해서 활동하고 있다. 체육회는 현재 1만 1천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전체 회원들은 5개의 읍·면 체육회와 19개 종목별 체육회, 24개 단위체육회에 각각 소속되어 있다. 특히 축구, 배구, 배드민턴, 족구, 테니스, 댄스스포츠 등 8개 회원단체 종목은 매년 전국대회를 개최하며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기장군을 대표하는 체육시설로는 월드컵빌리지를 비롯해 기장 현대차드림볼파크, 리틀야구장, 소프트볼구장, 실외 테니스장 그리고 정관체육시설, 철마체육시설, 정관읍 두명리 공공 공지 체육시설 등이 있으며 부산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기장군체육회가 매년 열고 있는 대표적으로 행사로는 ‘기장군민 걷기대회’가 있다.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2021년을 제외하고 1998년부터 매년 봄과 가을에 군민 5천여 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행사인 걷기대회는 명실상부한 체육회의 대표행사이다. 2022년 올 4월 봄 걷기대회는 코로나19 관계로 행사가 열리지 못했으나 10월 가을 걷기 대회는 좌광천 일대에서 열릴 계획이다.



또한 유소년 축구지원을 위해 ‘기장군 초등학교 축구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 18회째를 맞는 축구대회는 관내 17개 초등학교가 참여해 열띤 축구경기를 치른다. 체육회는 참가 학생 전원에게 유니폼을 지원하는 등 통큰 지원을 하고 있다.

기장군체육회는 앞으로 기장군의 지원을 받아 월드컵빌리지 내 종합운동장을 지어 종목단체가 체육회관처럼 쓸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는 것이 목표다. 또 전국대회에 참가한 많은 선수 및 관계자들이 대회기간 동안 지낼 수 있는 월드컵빌리지 내 유스호스텔을 짓는 것도 꿈이다. 기장군체육회의 바람이 이루어질지 계속해서 체육회의 활발한 행보를 기대해본다.





2022 부산광역시 체육지도자 연수회 개최

📅 2022년 4월 26일(화) 📍 아시아드시티

부산광역시체육회(회장 장인화)는 지난 4월 26일(화) 아시아드시티에서 전문체육지도자 100여명과 함께 부산 전문체육 지도자 역량강화를 위한 「2022년 부산 체육지도자 연수회」를 개최하였다.

연수회에서는 지도자들과 오찬간담회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고민을 함께 나누었으며, 청렴서약식을 통해 스포츠 4대악 예방 및 스포츠인권보호 등의 결의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스포츠인권보호 및 (성)폭력예방 교육에서는 스포츠인권보호에 대한 역량강화와 MZ세대의 이해와 소통이란 주제로 젊은 선수들과의 소통을 통한 훈련 방법에 대해 교육하였다.



제33회 부산광역시시장기 시민게이트볼대회 개최

📅 2022년 4월 27일(수) 📍 삼락생태공원

부산게이트볼 동호인들의 축제인 ‘제33회 부산광역시시장기 시민게이트볼대회’가 지난 4월 27일(수)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삼락생태공원 내 게이트볼경기장에서 치러진 이날 대회에는 16개 구·군체육회 46개 클럽팀 450여명의 동호인이 참석해 열띤 경쟁을 펼쳤으며,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3년만에 개최된 시민게이트볼대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해제 및 엔데믹 전환에 대한 기대감으로 어느 때 보다 반갑고 뜻깊은 한마당 축제로 이어졌다.

부산광역시체육회 골드멤버

BUSAN SPORTS COUNCIL GOLD MEMBER



|주|대원플러스건설
DAEWON PLUS CONSTRUCTION CO., LTD.



|주|동원개발
www.dongwonapt.co.kr



BKE Group

부산도시가스 | SK E&S

SI system

(주)동신유압

(주)일동
ILDONG Construction Co., Ltd.

박원욱병원

HEE CHANG

星湖海運株式會社

seun 세운철강

부산광역시버스운송사업조합

송도해수피아
SONG DO HAESOOPIA

NAMYANG
남양양산업개발

BUSAN TAXI
BUSAN TAXI TRANSPORTATION ASSOCIATION

Scom

(株)明進 TSR
SINCE 1973 MJ TSR CO., LTD.

SUNG
CHANG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스타자동차